가볼만 한 여행지

휴식·치유·스릴… 오붓한 가족여행 떠나볼까

싱그러운 분위기와 화창한 날씨가 절정에 이르는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일상을 벗어나 추억을 쌓아보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트레킹…담양 죽녹원서 청량한 죽림욕 매력
완도서 싱싱한 수산물 맛보고 명량해상케이블카 거센 파도의 짜릿함
순천 드라마촬영장 추억에 빠지고 광양 배알도 섬정원서 낭만에 흠뻑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 출렁다리.

◇장성 장성호 수변길=장성호 수변길은 최근 떠오른 핫플레이스다. 수변길은 웅장한 장성호를 정면에 두고, 좌측은 출렁다리가 있는 '출렁길', 우측은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숲속길'로 나뉜다.

2.4km 거리의 출렁길은 '옐로우 출렁다리'와 '황금빛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옐로우 출렁다리를 건너면 최근 설치된 '스카이 전망대'가 나오는데 전망대는 11m 높이로 장성호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출렁길'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숲속길'은 트레킹 마니아들이 선호한다. 따뜻한 봄 햇살과 산새 소리, 바람 소리, 진한 나무 내음을 만날 수 있는 호젓한 길이다. 호수 모양에 따라 이리저리 구부러진 데크길이 2km 가량 이어진다.

◇담양 죽녹원=담양읍 향교리의 죽녹원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다. 죽녹원 입구에서 돌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오르며 굳어 있던 몸을 풀고 나면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대바람이 일상에 지쳐 있는 심신에 청량감을 불어 넣어준다.

죽녹원 안에는 대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죽로차(竹露茶)가 자생하고 있는데 죽로차 한 잔으로 목을 적시고 죽림욕을 즐기며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대나무를 올려다 보자.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대나무와 댓잎이 풍기는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완도 해변공원=완도에서는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행사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2022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5~8일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동상,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안심하고 떠나는 치유여행'으로 트로트 스타 영탁, 배우 김수미 등이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축제에서는 '희망의 바다' 개막 행사를 비롯해 도교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소속된 광주여대 양궁팀의 사인회,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린다. 이어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인 가수 영탁의 무대, 유명 래퍼 비와이가 소속된 해양경찰관현악단의 공연 등도 펼쳐진다. 행사가 열리는 해변공원 앞바다에서는 전통 대나무 낚시 체험, 전복 수확·전통 재래 김 뜨기 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배우 김수미와 함께하는 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도 진행된다. .

◇해남 명량해상케이블카=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 거센 파도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보는 것도 추천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체험해보자.

명량해상케이블카는 5일부터 8일까지 중학생 이하 소인 발권 대상자의 경우 정상가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케이블카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카 티켓을 제시하면 진도 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4층에 마련된 명량MR시네마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명량MR시네마는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명량대첩의 현장인 울돌목 바다의 현장 위에 1597년 그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이색적인 영상관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순천 드라마촬영장=순천 드라마촬영장이 최근 화제가 된 애플TV+ 드라마 '파친코'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파친코'는 4대에 걸친 일본 이민자 일가족과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일부 장면을 순천 드라마촬영장의 등용문 다리 거리와 순천읍내 천변에서 촬영했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60~80년대 서울 변두리, 달동네, 순천읍내를 재현한 세트장으로, 드라마 '파친코'뿐 아니라 '사랑과야망', '에덴의동쪽', '허삼관', '제빵왕김탁구' 등 70여 편의 영상 작품을 촬영한 인기 촬영지이다. 이 곳에서는 옛날 교복 체험, 주전부리, 민속놀이, 고고장 등 옛 추억이 묻어나는 6080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포토존이 조성돼 있어 레트로 감성 여행지로도 주목 받고 있다.

◇광양 배알도 섬정원= 낭만이 흐르는 정원이 가꿔진 배알도는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작약, 수국 등 아름다운 꽃이 계절 따라 피어나는 섬 정원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별 헤는 다리와 해맞이다리를 통해 닿을 수 있다.

푸른 바다를 건너면 '배알도'라는 빨간 조형물이 관광객들을 반기며, 섬 정원 곳곳에는 여백이 있는 쉼터도 조성돼 있다. 섬을 둘러싼 나무데크를 따라 바다를 보며 걷다보면 운치 있는 소나무에 둘러싸인 '해운정'도 만날 수 있다.

배알도 섬 정원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광양여행을 태그하고 업로드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31일까지)도 진행중이니 참여해 당첨의 기쁨도 누려보라.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양 배알도 섬 정원.

해남 울돌목 명량해상케이블카.

담양 죽녹원.